

가슴이 아파요 (창상성 염증의 예방)

김 영 민*

‘가슴이 아파요’ 많이 들어 본 말이다. 심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부르짖음? 물론 그럴 수도 있다.

사람의 경우는 대부분이 선천성이며 수술에 의해서 거의 바로 잡을 수 있다니 오히려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덩치 큰 소들이 가슴이 아파서 울부짖고 있으며 수술에 의해 바로잡는 것도 그리 만만치 않으니 답답한 일이다. 그것도 선천성이 아니라 사육환경이 나빠서 또는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온다면 참으로 할 말이 없다.

소가 가슴이 아파서 울부짖는 경우는 몇가지 질병을 예로 들 수 있으나 여기서는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소가 예리한 쇠붙이를 삼켰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병적인 상태를 말하려 한다.

“소가 뭐 먹을 것이 없어서 쇠붙이를 먹는담……”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소는 자신이 쇠붙이인 것을 알고도 삼키는 경우가 있으며, 쇠붙이인 줄 모르고 삼키는 경우의 두가지 상황이 있다. 쇠붙이인줄 알고도 삼키는 경우는 영양이 부족한 일종의 병적 상황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좀 관심있는 관리인이라면 소들이 자신의 주위에 있는 녹슬은 쇠파이프, 벽에 박힌 못, 방목장의 철책 또는 흙이나 연탄재 등을 할 일 없이 훑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것은 소가 그저 심심풀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영양

부족에서 오는 현상으로 건강한 소에서는 이런 짓을 발견하기 매우 어렵다. 녹슬 쇠붙이를 훑다가 빠지거나 부러져서 입에 들어오면 우물우물 하다가 그대로 삼키고 만다. 쇠붙이인 줄 모르고 삼키는 경우는 관리인의 실수로 사료중에 섞여 들어간 못, 철사토막 등을 삼키는 것인데 되새김을 하는 소의 식성이나 입안의 해부적인 구조로 보아 입안에 거칠은 물건이 들어와도 그것을 빨리 구별하기 보다는 별로 개의치 않고 그대로 삼키고 마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삼켜진 쇠붙이는 소의 위에 생김새로 보아 제 2위로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이며 제 2위의 강력한 수축운동 때문에 위벽을 뚫고 나가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병이 진행되면 위벽을 뚫고 난 쇠붙이는 인접된 주위에 다른 장기에다 피해를 주게 되는데 쇠붙이의 모양이나 크기 또는 뚫고 나가는 방향에 따라서 복막염, 심낭염, 늑막염, 폐염 등으로 악화되어 여러가지 증상을 나타내게 된다.

즉 이런 소들은 병의 초기에는 식욕이 떨어지며 되새김질도 눈에 띄게 줄어들며 따라서 배설물의 양도 적어지면서 유량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싫어서 앓은 대로 오래 있거나, 서있는 대로 오래 있는데 강제로 걸음을 걸려 보면 뻣뻣한 자세로 마지못해 움직이며 경사진 곳을 내려가려면 더욱 더 힘들어하며 신음을 하는 경우도 보게 된다. 병이 악화되면 소

*오류가축병원장

는 살이 빠지고 우울한 표정으로 자신의 몸에 무엇이나 접촉되는 것을 꺼려하게 되며 좀더 주의깊게 살핀다면 왼쪽 앞다리의 겨드랑이가 건강한 소에 비하여 가슴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앞가슴에 물이 고인 듯 부어 있거나 왼쪽 어깨의 근육이 잘게 흔들리면서 목의 정맥이 유난히 굵게 두드러지고(그림 2 참조) 가벼운 고창증이 자주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러한 여러가지 증상이 모두 나타났을 경우의 대부분은 소를 정상으로 회복시키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며 부득이 도태시키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있을 수 없다. 다만 방법이 있다면 예방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우선은 소에게 충분한 영양공급 즉 비타민 또는 광물성 미량물질 등이 부족하지 않게 사료첨가제 등을 활용하여 쇠붙이에 대한 소의 기호성을 없애주어야 한다. 그러나 영양공급에 부족함이 없어도 거칠은 먹이를 먹는 소의 식성때문에 쇠붙이를 삼키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일단 위 속에 들어간 쇠붙이가 많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거나 아주 큰 쇠붙이만 아니라면 별다른 사고가 없겠으나 되새김을 위한 위운동과 그에 따른 위 내용물의 움직임에 따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말썽이 일어나는 것이니 이런 움직임을 방지하는 뜻으로 소에게 막대 자석을 먹이는 것이다.

이 자석은 자체 무게에 의하여 제 2위의 바닥에 놓이게 되고 따라서 소가 삼킨 쇠붙이는 이 자석에 의하여 움직이지 못하고 붙잡히게 되어 소는 위험을 면하게 된다. 자석을 먹이는 시기는 대체로 임신직전, 즉 생후 1년쯤이 적당한 시기인데 쇠붙이에 의한 사고가 특히 임신말기에 태아에 의해서 소화기관이 앞쪽으로 압박을 받을 때에 잘 일어나기 때문이다.

소를 외부에서 구입했을 때에는 이미 자석을 먹였는지의 여부를 판정받기 위하여 임상 수의사에게 진찰을 의뢰함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치는 소가 쇠붙이를 삼킬 것을 염두에 두고 취하는 조치이며, 보다 근본적인 방법

은 아예 쇠붙이를 삼킬 수 없도록 소의 주위를 깨끗하게 해 주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 하겠으니 방목장 주위나 철책 등에 불안정한 못, 철사토막 등은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혹 사료 중에 섞여 들어가는 쇠붙이를 가려내기 위하여 대형 자석으로 사료를 한 두번씩 휘저은 후에 먹일 것을 권장하지만 잘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위와 같이 여러 각도로 예방조치를 취해도 쇠붙이에 대한 병은 예고없이 찾아오게 마련이니 이런 때에는 가급적 빨리 병의 초기에 임상 수의사에게 도움을 청하면 좀더 전문적인 여러가지 진단 방법으로 구체적인 병명이 밝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게 되는 데 쇠붙이에 의한 질병인 이상 원칙적인 대책이란 수술 등의 방법으로 쇠붙이를 제거하는 것이 되겠으나 수술도 병의 초기에나 해당되는 방법이며 병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에서는 부득이 소를 도태시켜야만 하는 상황이 허다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도태시키기는 아깝고 수술을 할 처지도 못 된다면 차선책으로 다음의 방법으로 소의 구제를 시도해 봄직하다. 즉 수의사에게 의뢰하여 항생제와 소화기능 강화제의 치료를 받으면서 소의 앞쪽 우사의 바닥을 뒷쪽에 비하여 20~30cm정도 높여서(그림 3 참조) 소의 몸이 뒷쪽으로 경사지게 해주면 내부의 장기들이 뒷쪽으로 기울어져서 제 2위 속에 쇠붙이는 앞으로 밀리는 상태를 모면하게 되니 병의 악화가 현재의 상태에서 멈추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효과까지 기대할 수가 있는데 위와 같은 조치로 병의 상태가 좋아지는 시기는 대체로 2~3일 후가 되지만 완전하게 회복이 되려면 2주 전후의 시일이 필요하니 세밀한 관찰이 중요하다. 또 2~3일 사이에 증상이 좋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수의사의 재 진찰로서 수술 아니면 도태의 결정을 보아야 한다.

위의 여러가지 내용을 종합해서 판단해 볼 때에 소로부터 쇠붙이를 완전히 차단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일단 쇠붙이에 의한 병적증

상이 나타나면 뒷수습이 뜻과같지 못하니 방법이란 쇠붙이를 소로부터 차단시키려는 데에 정성을 다하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자석을 먹여두는 것이 현재로서는 제일 실용적인 대책이라 하겠다. 그러면 이제까지 자석을 먹인 소가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고 있는지? 그러나 우리나라의 시험적인 통계가 없어서 부득이 외국의 통계자료를 빌어야 한다. 도축과정에서 소의 위 속에는 검사대상 소의 55~80%가 아무런 피해가 없는 상태로 쇠붙이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쇠붙이들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엑스-선 촬영으로 41마리의 쇠붙이를 지니고 있는 소에게 자석을 먹이고 일주일 후에 다시 엑스-선 촬영을 해 본 결과 80%가 사고를 면할 만한 상태로 변화된 것을 확인한 시험 결과도 나와 있다. 또 자석을 먹인 소 1,900 마리를 조사한 결과 쇠붙이로 인한 사고의 발생이 매년 8%이던 것이 3년 뒤에는 1%로 감소되었으

며, 쇠붙이에 의한 제 1 위 절개 수술이 1년만에 150마리에서 50마리로 줄었고 3년 뒤에는 18마리로 줄었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위의 자료는 축산 선진국의 자료이며 축산시설이 선진국과 같지 못한 우리나라의 실정으로서는 위의 자료보다 좋지않을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며 또 축산분야에 전문적인 관리인이 많지않은 것도 위와 같은 병을 많이 일으키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얼마전 모 TV프로에 「만일 당신에게 일역원이 생긴다면 무엇을 하겠느냐」는 물음에 대하여 첫째는 집을 하나 장만하겠다는 대답이었고, 두번째는 목장이나 하겠다는 대답이었다.

복잡한 인간사회를 떠나 살아있는 자연, 거 것이 없는 가축과 대화를 갖고싶은 평범한 소망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그렇다. 가축들은 거 것이 없다. 노력하고 연구한 만큼 사람들에게 보답을 해 준다. 양축가 여러분도 깊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연구한다면 여러분의 축산은 반드시 성공하리라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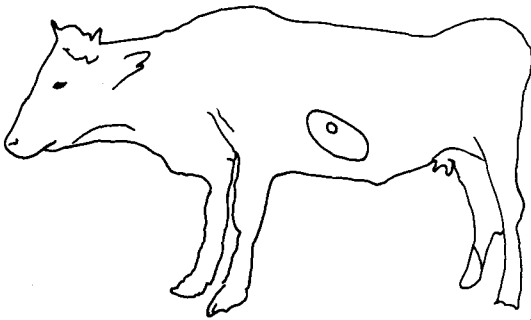


그림 1. 소의 제 2 위에서 나온 자석에는 녹 슬은 철조망 토막이 붙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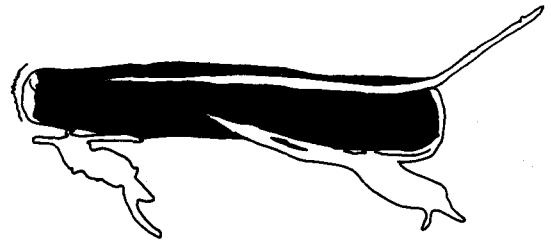


그림 2. 쇠붙이에 의해서 심낭염을 일으킨 소는 목의 정맥이 굵게 두드러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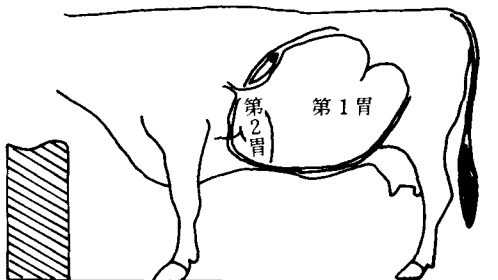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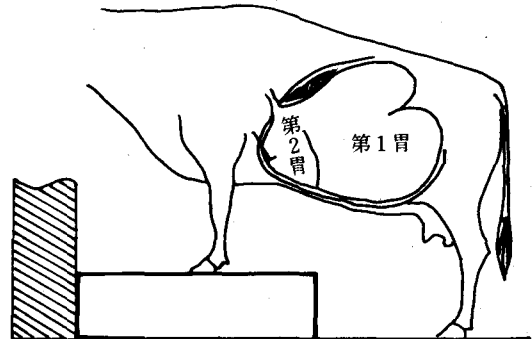


그림 3. 제 2 위에 밝힌 목이 정상 자세에서는 주위 장기에 위험한 방향임(오른쪽).



장기에 위험한 방향이고(왼쪽) 앞발을 높여준 자세에서